

懶翁慧勤의 구법활동과 선사상

(The Seeking after Truth and Zen thought of Na-Ong)

김영두(kim young doo)(원광대 교수)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나옹혜근의 생애와 구법활동
3. 나옹혜근의 선사상
4. 맺는 말

1. 서 론

나옹혜근(1320-1376)은 고려 충숙왕 7 년에 탄생하여 우왕 2 년까지 세수 56 세의 생을 살았던 보기 드문 고승이다. 그의 생애와 구법활동 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내용을 그의 제자 覺宏이 기록한 「行狀」과 李穡이 찬술한 「普濟尊者禪覺塔銘」등을 중심으로 고찰코자 한다. 또한 나옹의 탁월한 오도경지를 인정하고 스승이 된 인도의 고승 指空禪師(1235-1363)¹⁾는 스스로 서천 108 대 조사라 할 정도로 출중한 선승이었다. 지공 나옹 무학(1327-1405) 3 화상은 중국 북경시내에 있는 법원사에서 주석하고 있던 지공을 나옹이 먼저 상면하고 뒤이어 무학이 방문하여 心印을 나눌 정도로 깊은 법연의 관계이다.

이러한 3 화상에 대한 연구는 국내연구진에 의하여 이미 상당수준의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고 파악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나옹을 중심으로 그의 구법활동과 선사상을 재조명하고 집중 분석하되 지공과 무학에 대하여는 극히 제한적으로 특별히 관계된 부분만 언급하고자 한다.

2. 나옹혜근의 생애와 구법활동

나옹의 제자 覺宏이 기록한 「行狀」에 의하면, 나옹의 휘는 혜근이요 호는 나옹이며 옛 이름은 元慧이다. 거처하던 방은 江月軒이라 하였고 속성은 牙씨로 寧海府출신이다. 아버지의 휘는 瑞具이며 관직은 왕실의 음식을 관장하는 직책인 膳官署丞이었고 어머니는 鄭氏이다. 나옹의 어머니 꿈에 황금빛 송골매가 날아와 그 머리를 쪼다가 떨어뜨린 알이 품안에 드는 것을 보고 아기를 가져 1320년(庚申) 1월 15일에 탄생하였다. 나옹은 태어날 때부터 골상이 보통사람과 달랐고 근기가 뛰어나 출가하기를 원하였으나 부모가 허락하지 않았다. 대도(연경)에 체류 중이던 지공은 1326년 3월에 고려에 입국하여 2년 6개월여를 머물렀는데 그때 당시 8세이던 나옹을 만나게 되었고 나옹에게 세속 신도에게 내리는 菩薩戒牒을 주었다. 나옹은 20세 때에 친구의 죽음을 보고 생사문제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 주변에 물었으나 모두가 ‘모른다’는 답을 듣고는 생사문제와 우주의 이치에 대한 의문을 풀고자 尙州에 있는 功德山 妙寂菴의 了然禪師에게 출가한 후 4년여를 머물다가 선사의 권유에 따라 다른 스승을 찾아 여러 절을 탐방하기도 했고 至正 4년(甲申, 1334)에 회암사에 당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참선하며 정진하였다. 이 때 회암사에는 일본승려인 石翁和尚이 있었는데 어느날 그는 승당에 내려와 禪床을 치며 말하기를, “대중운 이 소리를 듣는가?”라고 묻자 대중운 말이 없었으나 나옹은 偈를 지어 올렸다.

選佛場 안에 앉아

정신차리고 자세히 보라

보고 듣는 것 다른 물건 아니요

원래 이것은 옛 주인이다.

나옹은 이 후 4년 동안을 회암사에서 정진 수행하던 중 하루 아침에 정신이 맑아지며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큰 스승을 찾기도 하고 깨달음의 경지를 확인도 하는 겸 28세 되던 해인 1347년(丁亥) 11월에 회암사를 떠나 이듬해인 1348년(戊子) 3월 13일 大都의 法源寺에 주석하고 있던 지공화상을 만난 것이다. 이 때 8세 때에 받았던 보살계첩을 가지고 가 나옹이란 법호와 몇 가지 신표를 받았는데 그것이 현재까지도 보존되어오고 있다.²⁾

법원사에 주석하고 있던 지공은 나옹을 대면하자, “그대는 어디에서 왔는가?”하고 묻자 나옹은 “고려에서 왔습니다”라고 답했고, 이어서 “배로 왔는가, 육지로 왔는가, 신통으로 왔는가?”라고 묻자 나옹은 “신통으로 왔습니다”고 답했다. 지공은 “신통을 나타내

보라“ 라고 하자 나옹은 지공의 앞으로 가까이 가서 합장하고 섰다. 지공은 이와 같은 몇 가지 문답을 통하여 나옹의 깨달은 경지를 인정하고 대중과 함께 생활하도록 허용하였다. 어느 날 나옹은 지공에게 계송하나를 지어 올렸다.

산과 물과 대지는 눈앞의 꽃이요(山河大地眼前花³⁾)

삼라만상 또한 그러하도다(萬像森羅亦復然)

자성이 원래 청정한 줄을 비로소 알았나니(自性方知元清淨)

티끌마다 세계마다가 다 법왕신이네(塵塵刹刹法王身)

이 계송에서 또한 나옹의 오도의 정신세계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미 범신의 경지를 체득한 달관된 그의 경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나옹의 계에 대하여 지공의 화답과 질문이 이어지고 또 나옹은 답 계를 올리는 등의 對句를 통하여 지공은 나옹의 法器와 悟道の 경지를 인정하고 법원사에서 10 년 동안 板首로 있게 하였다. 법원사 지공문하에서 3 년이 되는 1350 년(庚寅年) 1 월 1 일 지공은 順帝 황후가 내린 붉은 가사를 입고 방장 안에서 대중을 모이게 하고 말하였다.

분명하다. 법왕이여, 홀로 높아 나라를 복되게 한다(明然法王巍巍福國)

하늘에는 해가 있고 밑에는 조사가 있다(天上日日下有祖)

노소를 불문하고 지혜있는 사람이면 對해 보라(不問大小有智慧者盡得對看)

이에 대중은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나옹은 나아가 말하였다.

분명하다는 것도 오히려 저쪽 일인데(明然猶是那邊事)

홀로 높아 나라를 복되게 한다는 것은 빈 소리로다(巍巍福國是虛聲)

하늘의 해와 땅의 조사를 모두 다 쳐부수어(天日下祖俱打了)

그 경지에 이르면 그것은 무엇인가(到這般底是什麼)

이에 지공은 옷자락을 들어 보이면서 말하였다.

안과 밖이 다 붉다(內外都紅)

나옹은 세 번 절하고 물러났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나옹의 탁월한 오도의 경지는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지공은 이러한 나옹을 대중 앞에서 공인한 것이다.

그런데 지공이 주석하면서 나옹을 공인하기도 하고 그 외에 무학 등 많은 고려 유학승과 대중을 접견하던 法源寺는 어떠한 절인가도 궁금한 일이다. 필자는 1990 년부터 중국을 내왕하면서 북경에 있는 현재의 법원사가 지공이 머물던 법원사로 중국학자들과의 공동연구결과물로 발표한 적이 있는데⁴⁾ 금번 이 논문을 작성하면서 다시 확인하여 본 결과 지공이 주석하였던 법원사는 이 법원사가 아니고, 回訖人인 元의 대부대감 察罕帖木兒의 아내가 김씨성의 고려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지공을 따라 출가한 후 大都 澄淸里에 집을 구입해서 佛寺로 개조하여 스승인 지공을 모셔와 주석하게 하였는데 이 佛寺의 이름이 바로 法源寺인 것이다.⁵⁾ 바로 이 불사에서 지공은 나옹, 무학 등 많은 고려인 승려들을 접견하였다. 그런데 필자가 중국의 황유복, 진경부와 공동으로 연구조사 발표한 「한,중불교교류사연구」 논문에서는 “,法源寺---北京市 宣武區의 法源寺前街에 위치하여 있는 사원은 北京城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고 가장 훌륭하게 보존된 사찰의 하나이다. 唐 貞觀 19 년(645)에 창건된 사원은 唐太宗 李世民이 東方을 원정하는 전역에서 죽었던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건설한 것인바 원명은 憫忠寺였다.”까지는 북경시내에 있는 현재의 법원사에 대한 설명문장으로는 옳은 문장이다.⁶⁾ 그런데 이하의 “高麗 忠穆王 4 년(1348), 慧勤(懶翁)은 元 大都의 法源寺를 찾아 인도 승려 指空스님을 알현하였다. 高麗 恭愍王 元年(1352)에 다시 法源寺를 찾은 慧勤은 指空을 재차 알현하였다. 한달후 혜근은 재차 사원을 떠나 행각하였다.” 부분은 지공이 주석하던 법원사에 해당하는 문장이며 현재 북경시내에 있는 법원사에 대한 설명으로는 적합지 않은 문구인데 두 사찰에 대한 설명

문장이 혼용된 것이기에 이번 기회에 바로 잡는 것이다. 지공이 주석하던 당시의 法源寺는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옹은 이렇게 지공문하에서 대담하며 직접지도받기도하고 대중 앞에서 공인받는 과정을 3 년여 동안 마친 후인 1350 년 3 월에 중국의 다른 여러 선사들을 만나보고자 법원사를 떠나

지금의 절강성지역으로 가기로 하고 通州에서 배를 타고 남행하여 4 월 8 일에 平江府에 당도하여 몽산덕이가 있던 휴휴암⁶⁾에서 여름안거를 하고 7 월 19 일에 휴휴암을 떠나려 함에 암자의 장로가 더 체류하기를 권하며 만류하자 다음과 같은 계송을 지어 뜻을 밝혔다.

쇠지팡이를 가로 날려 휴휴암에 이르러

쉴 곳을 얻어 이내 쉬었네

이제 이 휴휴암을 버리고 떠나거니와

四海와 五湖에서 마음대로 유람하리라.

이러한 나옹의 계송에서 당시 나옹의 큰 깨달음을 통한 해탈의 경지와 대 자유를 얻은 정신세계를 알 수 있으며 또한 중국 임제선계의 명성있는 선사들을 두루 탐방하여 대담해 보고자 하는 뜻을 파악할 수가 있다. 休休庵을 떠나 온지 10 여일이 경과된 후인 8 월에 淨慈禪寺⁶⁾에 당도하였다. 이 정자선사는 바로 나옹이 지공과 함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平山處林이 주석하는 절이다. 평산은 나옹을 보자 몇 가지 문답을 가진 후 나옹의 殺活自在하는 禪機가 남달리 뛰어난 줄을 알고는 몇 달을 쉬어가게 하였다. 어느 날 평산은 나옹에게 자신이 전수받은 法衣 한 벌과 拂子 하나를 주며 계를 내렸다.

법의와 불자를 지금 붙여 주노니

돌 가운데서 집어낸 티 없는 옥이어라

계율이 항상 깨끗해 보리를 얻었고

선정의 슬기로운 광명을 모두 갖추었네

이렇게 평산처림으로부터 법의와 불자를 전수 받았고 전법계를 받음으로서 평산의 임제 법풍을 계승한 것으로도 보는 것이다.

이듬해인 1351년(辛卯년, 至正 11년) 2월 1일에 평산처림 문하를 떠나 明州의 補陀洛迦山⁷⁾으로 가서 관음을 친견하고 育王寺⁷⁾로 돌아와 석가상에 예를 올렸다. 나옹은 이 절의 장로 悟光으로부터 찬탄하는게송을 받으며 雪窓和尚을 상면하였고, 명주 無相和尚을 만났으며 또 枯木榮和尚을 만나 禪의 경지에 대한 대화를 가져 화상의 경지를 가늠해 보기도 했다.

다음해인 1352년(壬辰) 4월 2일에는 무주 伏龍山에 당도하여 千岩 元長화상을 만나 날카로운 선문답을 거쳐 입실을 허용받고 여름 하안거를 지내고 떠나와 송강에 이르러 了堂화상과 泊菴화상을 만나 보았으나 그들은 나옹의 선기를 상대할 정도가 되지 않은 정도였다. 이렇게 절강성 일대의 주로 임제 선장들을 두루 친견하며 자신의 선기를 시험해 보기도 하고 그들의 선 경향을 파악해 보기도 하는 유익한 기간을 직접 만들어 체험한 것이다. 또한 이들에게 나옹은 고려선사의 선기를 보여주고 찬탄을 받기도 한 것은 그야말로 나옹 개인만의 소득이 아니라 고려인의 긍지를 보여주는 계기도 되었던 것이다.

나옹은 같은 해 3월에 대도 법원사로 돌아와 지공에게 인사 올리자 지공은 방장실로 맞아들여 차를 권하며 法衣 한 벌과 拂子 하나와 범어로 쓴 편지 한통을 주며 계를 내렸다.

百陽에서 차 마시고 正安⁷⁾의 열매는

해마다 어둡지 않은 한결같은 약이네

동서를 바라보면 남북도 그렇거니

宗旨 밝힌 법왕에게 千劔을 준다.

이러한 지공스승의 전법계에 나옹은 화답을 하였다.

스승의 차를 받들어 마시고

일어나 세 번 절을 올리나니

다만 이 참다운 소식은

예나 이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나옹은 이렇게 지공으로부터 전법을 받은 후 1 개월간 지공을 모시고 법원사에 머문 뒤 다시 대도(연경)의 여러 지역을 유력하였고, 이러한 나옹의 특출한 禪機와 탁월한 경지가 원의 황실에까지 알려지자 順帝는 1355 년(乙未) 가을에 聖旨를 내려 연경의 廣濟禪寺⁸⁾의 주지를 하도록 명함에 따라 광제선사에 주석하게 되었다. 이듬해인 1356 년(丙申) 10 월 15 일에 나옹이 개당법회를 열자 황제는 院使를 보내 금란가사와 상아로 된 拂子를 하사하였다. 나옹은 선향을 피워 指空선사와 평산스님의 가르친 은덕에 감사를 표시하고 나서 說法을 시작하였다.

나옹은 광제선사에 오래 머물지 않고 이듬해인 1357 년(丁酉)에 이 사찰을 떠나 다시 燕 薊의 산천을 두루 유력하다가 법원사에 들러 지공선사에게 자신이 가야 할 곳을 문의하였다. 이에 지공은 “이제 본국으로 귀국하여 三山兩水 사이를 가려 살면 불법이 저절로 흥왕하여질 것이다”라고 답함에 따라 1358 년(戊戌) 3 월 23 일에 지공선사께 하직인사를 올리고

귀국길에 올라 遼陽, 平壤, 東海 지역 등을 遊歷하며 설법하고 2 년 후인 1360 년(庚子) 가을에 오대산 象頭菴에 체류하였다. 나옹은 정확히 법원사에 도착한 날(1348. 3. 13)로부터 만 10 년을 넘겨(1358. 3. 23) 법원사를 떠나왔으니 법원사에 도착 후 지공선사가 말한 대로 10 년을 중국에서 구법, 교류활동을 하며 자신의 득도 경지와 禪機도 마음껏 발휘하면서 대부분의 중국선사들의 찬탄을 불러일으킨 후 고려로 돌아 온 것이다. 이러한 나옹에게 잇을 수 없는 두 스승은 바로 指空과 平山處林 선사이다. 이렇게 중국 선불교계를 두루 탐방하고 돌아온 나옹의 말년은 평탄 한 것만은 아니었다. 귀국한해(庚子)는 공민왕 재위 9 년인데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면이 없지 않았지마는 불교계의 불안과 유생들의 억불요청이 쇄도해 오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1361 년(辛丑) 겨울에는 국왕이 내침사 方節을 보내 內乘馬로 입궐을 청하므로 입궁하여 설법하고 계승 2 구를 올리자 국왕은 “이름을 듣는 것은 직접 보는 것만 못하다”라고 경탄하며 신광사 주지로 주석하기를 청해 신광사에 머물게 되었다. 이 해 11 월에 흥건적이

침입하여 신광사에까지 들어오자 대중은 피신을 권하였으나 나옹은 오히려 감화를 주었고 무난히 사찰을 수호할 수 있었다.

1363년(癸卯) 7월에 국왕께 글을 올려 주지직 사퇴를 청하였으나 거듭 청하여 2년 동안 주지직을 더 수행하고 1365년(乙巳) 3월 입궁하여 글을 올려 윤희를 받고 龍文山, 圓寂山 등지를 遊歷하였다. 1366년(丙午)에는 금강산 正陽寺에서 휴양하고 있었는데 이듬해인 1367년(丁未) 가을에 왕이 淸平寺에 머물기(주지)를 청하였으며 이 해 겨울에 普庵장로가 지공이 열반하면서 遺囑한 가사 한 벌과 편지 한 통을 전해 주었다. 지공은 이미 1363년 11월 29일 열반하였으나 당사가 元 말기요, 明 태동기이므로 뒤늦게 지공의 유품이 나옹에게 전달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나옹은 가사를 읽고 향을 사른 후 普說하였으니 사제간의 따뜻하고 깊은 以心傳心을 가늠할 수가 있다. 1369년(己酉) 9월, 병으로 주지직을 사퇴하고 오대산 靈感菴에 머물던 중인 1370년(庚戌) 1월 1일 아침에 司徒達叅가 지공선사의 영골과 사리를 회암사로 모셔왔다. 나옹은 3월에 지공스승의 영골에 예를 올리고 도성 안에 있는 廣明寺에서 안거를 지냈다. 이해 8월 17일, 국왕은 신하를 보내 회암사에 주석하기를 청하였다. 9월에 국왕은 나옹이 主盟이 되어 工夫選을 시행하기를 청하였다. 공부선은 승려들의 공부정도를 시험하는 일종의 승과시험이다. 이달 16일에 選席을 열고 국왕과 君들, 백관들이 임석하고 禪을 講하는 승려 및 雪山國師도 참석했다. 아마 나옹은 설산국사와는 그간 별 교류가 없었는지 인사를 나눈 후 처음으로 방장실에 함께 들어서자, 국사를 향하여 “화상”하고 부르자 국사는 머뭇거렸고 이때 나옹은 좌복을 들어 국사의 머리를 치고(打揆頭)는 태연히 밖으로 나왔다.

이 사건에 대하여 나옹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관계이던 국사를 때린 것으로 보는 경향도 없지 않으나 필자의 견해는 나옹이 국사에게 禪機를 보이기도 하고 국사로 하여금 국사라는 相을 비우도록 하는 殺活自在의 禪 행위라고 본다. 나옹이 이렇게 좌복으로 상대방을 친 일은 중국 절강성 淨慈禪寺에서 平山處林을 상면했을 때도 있었던 일로 禪機를 보인 행위였다. 이때 평산은 “이 도적놈이 나를 죽인다”라고 소리치자 나옹은 태연히 “내 칼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말하자 평산은 크게 웃고는 나옹의 손을 잡고 방장실로 들어가 차를 권하고 몇 달을 쉬어가게 한 일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때 실시한 공부선 과목은 먼저 입문 등 三句를 묻고 이어서 功夫十節目과 三關을 묻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였으나 대중의 수준이 아직 여기에 이르지 못하여 삼구만 묻는다고 했다. 그래도 통과된 사람이 없었으나 뒤에 온 幻庵混修(1320-1392)만이 삼구와 삼관 등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서 나옹의 수제자로는 무학자초(1327-1405)와 환암혼수를 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통과율이 저조하자 현장에 임석하여 지켜본 공민왕과 나옹의 실망이 컸다. 이틀 뒤인 9월 18일 국왕은 知申使 廉興邦을 나옹에게 보내셨고, 또 19일에는 代言 金鎭을 보내 나옹을 내정으로 들게 하여 위로하시고 鞍馬를 내주시며 내시 安益祥이 보필하고 회암사로 가시게 했다. 1371년(辛亥) 8월 26일에 국왕은 工部尙書 張子溫을

보내 書印을 주시고 금란가사, 내외 법복과 발우를 내리시고 「王師大曹溪宗師禪教都摠攝勤修本智中興祖風福國祐世普濟尊者」에 봉하시고 태후도 금란가사를 보냈다. 또한 송광사에 주석하게 하였다. 내시 李士渭로 하여금 輔行을 삼아 8월 28일 회암사를 출발하여 9월 27일 송광에 도착하였다. 송광사에서 1년여를 지낸 후인 1372년(壬子) 가을에 지공이 말해준 “三山兩水” 사이에 살라는 말이 생각나 회암사로 돌아가기를 청하자 국왕은 李士渭를 보내 회암사로 맞이하였고, 9월 26일에는 지공의 영골과 사리를 가져다가 회암사 북쪽 봉우리에 탑을 세웠다. 1373년(癸丑) 9월에는 국왕이 이사위를 보내 회암사에서 消災法會를 열기를 청하였고 1374년(甲寅) 봄에는 신하 尹東明을 회암사에 보내 나옹이 회암사에 오래 주석하기를 청하였다. 예에 나옹은 “이 땅은 내가 처음으로 부처님의 도문에 들어온 땅이요 또 지공선사의 영골을 모신 땅이며 지공선사께서 일찍이 나에게 授記를하신 땅이니 어찌 무심할 수 있겠는가”하고는 전각을 다시 세우는 등 중창불사를 하기로 하였다. 같은 해 9월 23일에 공민왕이 서거하자 빈전에 나아가 영전에 小參하고 왕사의 印을 조정에 올렸다. 뒤이어 즉위한 禑王은 內臣 周彦邦에게 인보를 보내어 다시 국사로 봉하였다. 1376년 4월 15일에 중창불사를 마무리 짓고 크게 낙성식을 가졌다. 이때 각지에서 사부대중이 구름같이 운집하자 臺評이 말하기를 “회암사는 서울과 아주 가까워 사부대중의 왕래가 밤낮으로 끊이지 않으니 혹 폐업하게 되거나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진언하자 왕명에 의해 나옹을 밀양 瑩源寺로 옮겨가게 하였으며 이동을 재촉하였다. 나옹은 병중이었으나 藍輿를 타고 三門을 나오다가 다시 남여꾼에게 열반문으로 나오게 하자 지켜보던 대중은 통곡을 하였다. 이에 나옹은 “부디 힘쓰고 힘쓰시오. 나로 인하여 중단하지 마시오. 내 걸음은 驪輿에서 그칠 것이요”하였다. 이렇게 회암사를 떠나와 5월 2일에는 한강변에 이르렀고, 병중이므로 배를 타고 가기를 요청하여 배를 탄지 7일 만에 여흥 땅에 도착하였다. 나옹은 병이 위독하여 더 갈 수 없음을 조정에 알리게 하고 神勒寺에 머물게 되었고 호송관 卓詹 등이 영원사로 출발하기를 재촉하자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나는 장차 아주 갈 것이다” 하고 시봉하던 제자들과 몇가지 문답을 한 후 “노승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열반불사를 지어 마치리라”하고는 진시에 열반에 드니 丙辰年 5월 15일이며 세수 57세, 법랍 37년이다.

이러한 나옹의 일생은 크게 다섯 시기로 분류할 수 있는데⁹⁾ 첫째는 20세까지의 성장기, 둘째는 20세에 출가하여 28세까지 국내에서 수행 정진하던 시기, 셋째는 중국을 방문, 10년간 체류하던 중 지공과 평산처림 중심으로 새로운 선풍을 접하던 시기, 넷째는 39세에 귀국하여 11년간을 주지로 지내면서 시대와 불교계를 파악하고 준비하던 시기, 다섯째는 50세에서 열반에 이르기까지 회암사 주지와 공부선 주맹으로 활동하는 등 공민왕의 신심과 신뢰를 바탕으로 크게 공적을 나타내는 시기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3. 나옹의 선사상

나옹의 선사상은 조계종의 기본적인 사상체계에 기초를 두면서도 지공과 평산처림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또 하나의 특징은 여기에 나옹의 탁월한 禪機가 조화되어 다양하게 나타남을 그의 어록을 통하여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나옹의 선사상에 대한 그간의 여러 논문도 검토하였으나 여기에 다 정리하지 못하며 별도로 정리하고자 한다.

4. 맺는 말

나옹혜근은 참으로 위대한 선승이요, 선각자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뛰어난 행보와 사상 섭렵 및 달관된 경지를 귀국 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절망스런 상황 속에서도 초연한 해탈선승의 모습을 열반시까지 유지하여 주변인들과 오늘날의 후학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음에서 우리의 영원한 큰 스승이라 본다. 이 논문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필자가 금년 4 월 중국 「세계불포럼」 참석중 항주 와 보타산 일대를 탐방하면서 그 시대에 나옹이 이러한 지역을 탐방했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사실인지라 그 행적과 사상의 재조명을 절감함에 있으며 계속 보완 연구하고자 한다.

- 1) 指空의 출생연대는 정확히 문헌으로 전래하지는 않으며 지공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허홍식교수도 그의 저술과 논문에서의 출생년도가 서로 다르게 발표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허홍식교수의 견해 중 저술인 『고려로 옮긴 인도의 등불 -지공선현-』(일조각(1997),16 쪽)에서의 발표대로 1235 년설을 인용했다. 그의 논문 「지공의 사상형성과 현존저술」(동방학지 61(1989), 59 쪽)에서는 지공의 출생년도를 1300 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2) 공덕산인, 「나옹왕사의 보살계첩을 보고」, 『佛敎』 5, 1924.
권희경, 『고려사경의 연구』, 미진사, 1986, 435-438 쪽.
허홍식, 『고려로 옮긴 인도의 등불 - 지공선현-』, 일조각, 1997. 141 쪽, 143 쪽.
* 이 보살계첩은 현재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 3) ‘花’ 字를 ‘幻化’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종범, 이지관화갑기념논총 『한국불교문화사상사』 卷上, 1142 쪽 참조)
- 4) 金永斗, 黃有福, 陳景富, 「韓,中佛敎交流史研究」, 『韓國宗敎思想史』 제 6 집, 한국종교사학회, 1998. 151-208 쪽
- 5) 『牧隱文藁』 권 14(『高麗名賢集』 3, 914 쪽,
『한,중불교문화교류사』, 황유복, 진경부저, 권오철 역, 까치, 1995, 432 쪽.
- 6) 『中國宗敎名勝』(四川人民出版社, 1989)에 소개된 현재 북경시내에 있는 법원사에 대한 설명문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법원사는 북경에 있는 여러 사찰 중에서 역사가 제일 오래 된 것이다. 당나라 정관 십 년에 창시하였고, 무주시대에는 “민중사”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안사지란” 때 이름을 다시 “순천사”로 변경하였는데 두 번 파괴되었다가 복원하였다. 명나라 정통 시대에 다시 수선하고 “숙복사”라고 불렀다. 지금의 法源寺란 이름은

청나라 옹정 12 년 또는 서기 1734 년부터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사찰은 넓고 화목이 무성하고 옛 문화 차득한다. 주요한 건물은 산문, 천왕전, 대웅보전, 민층대, 대변각당, 장경루, 증고루 등이 있다. 사찰에서는 고물유적이 많다. 본 사찰에 있는 정향화(별호는 향설해라 함)는 세계에서 유명하다. 1958 년에 이 사찰경내에 중국불교대학(중국명-中國佛學院)이 설립되었다.“

- 7) 蒙山德異 : 원나라 승려, 지금의 江西출신, 그의 집안은 儒家에 속하는 가문, 백산 응으로부터 衣鉢을 전수받았다. 후에 절강성 嘉興 普光寺에 주석하였으며 작은 암자의 이름을 休休菴이라 명명하였다. 그의 명성이 알려져 왕공과 귀인이 많이 찾아 왔으며 시주 들어온 돈으로 사찰을 크게 일으켰다. 고려의 王이 그의 명성을 듣고 고려국 방문을 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 앓은 채로 입적하였다.(中國佛教人名大辭典, 上海辭書出版社)
- 8) 淨慈(禪)寺 : 浙江省 杭州市 南屏山 慧日峰의 북쪽 기슭에 위치해 있다. 강남의 유명한 사찰의 하나인 淨慈寺의 국제거래도 매우 광범위하였다. 淨慈寺와 제일 먼저 연계를 가진 나라로는 高麗國이었다. 後周 顯德 6 년(959)에 高麗求法僧 智宗은 먼저 永明寺의 延壽법사를 알현하고 心印을 전수받았다. 開寶 3 년(970)에 귀국한 智宗은 <宗鏡錄>을 해동에 제일 처음으로 전파하였다. <宗鏡錄>을 각별히 추앙하였던 高麗國王은 승려 36 명을 宋나라로 보내어 延壽법사와 불법을 배우게 하였다. 이때부터 法眼宗은 해동에서 널리 전파되었다(앞의 책, 김영두, 황유복, 진경부, 「한,중불교교류사연구」, 『한국종교사상사』 제 6 집, 169 쪽)
- 9) 補陀洛迦山은 세계 삼대 관음성지의 하나로 알려진 유명한 관음명소가 되어 세계각지의 불자들의 탐방이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절강성 舟山市에 속한다. 해수관음입상이 건립되어 있다. 필자도 금년(2006) 4 월에 중국불교협회와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가 공동개최한 제 1 회 「세계불교포럼」 행사 때 탐방하였다.
- 10) (阿)育王寺 : 浙江省 寧波市 鄞縣 寶幢鎮 鄞山 남쪽 기슭에 위치해 있는바 寧波市로부터 20 km 떨어져 있다. 阿育王寺는 高麗國 불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五代末 宋代初, 高麗僧 義通은 阿育王寺의 초청에 응하여 여러번 說法하였는데 端拱 元年(988) 10 월 21 일에 귀직한 후에는 阿育王山陽寺의 서북 모퉁이에 매장되었다. 元祐 元年(1086), 高麗 僧統 義天은 중국에서 불법을 습득하고 귀국하기 전야에 일부러 阿育王廣利寺로 가서 懷璉법사를 알현하였다. 懷璉은 義天을 위하여 불법을 강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 한수를 읊으면서 송별하였다. 介諶禪師가 사원의 주지를 부임하는 기간에 海商 方景仁은 高麗의 坦然國師의 부탁을 받고 阿育王寺로 가서 介諶의 語錄을 베껴서 귀국하였다. 語錄을 읽고 계시를 받은 坦然은 <語要>와 <四威儀偈>를 景仁을 통하여 介諶에게 올리었다. 글을 읽은 介諶은 재다시 서신으로 불법을 계시하면서 두 사람은 점차 친밀한 스승 제자의 관계로 되었다. 元 至正 11 년(1351), 高麗僧 慧勤은 杭州에서 明州로 가서 阿育王寺를 찾아 釋迦佛像을 순례하고 주지스님으로부터 찬송을 받은 적이 있다(앞의 책, 김영두, 황유복, 진경부, 「한,중불교교류사연구」, 『한국종교사상사』 제 6 집, 167 쪽)
- 11) 指空禪師의 方丈室을 가리킴.
- 12) 廣濟(禪)寺 : 北京市 阜城門內大街의 동쪽 끝에 위치하여 있는 이 사원은 金나라때 창건되었으며 원래 사찰명은 西劉村寺였다. 元나라때 불에 타으나 明나라 天順시대에 복원하였다. 高麗 恭愍王 4 년(1355), 高麗승 慧勤은 원나라 황제의 칙명에 따라 대도 廣濟寺에 주거하였다. 이듬해 10 월, 慧勤이 廣濟寺에서 가진 설법 때 황제는 사신을 파견하여 金襴袈裟와 幣帛을 하사하였고 황태자는 金襴袈裟와 象牙총채를 하사하였다. 1466 년(明, 憲宗 成化 2 년)에 사찰의 명을 '弘慈廣濟寺'로 사액을 내렸고 수차의 修繕을 거쳤다. 현재 광제사에는 「중국불교협회」 본부가 있다(앞의 책, 김영두, 황유복, 진경부, 「한,중불교교류사연구」, 『한국종교사상사』 제 6 집, 172 쪽, (몇 구절 보완함))
- 13) 허홍식, 『고려로 옮긴 인도의 등불』, 일조각, 1997, 140 쪽 참조